

보도자료		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
배포 일자	2018. 11. 27.(화)	
자료문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임경희 센터장(051-797-4591)- 이상건 연구원(051-797-4597)	
배포 부서	• 기획조정본부 홍보출판실(051-797-4381, 4383)	
보도 일시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, www.kmi.re.kr		

남미 수산물 소비 최대 잠재시장 브라질! **홍보 확산 및 품질 제고를 통해 청년층 소비자 공략** **- KMI 해외시장분석센터, 브라질 수산물 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-**

□ 한국해양수산개발원(원장 양창호, 이하 KMI) 해외시장분석센터가 ‘브라질 수산물 소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’를 발간하였다. 브라질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산물 소비 행태, 한국산 수산물 소비 실태 등을 조사·분석하여, 브라질 수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.

- * 조사대상 : 상파울루, 리우데자네이루 등 거주자 20~65대 성인 남녀 중 수산물 구입자
- * 조사방법 :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

□ 브라질의 2016년 수산물 수입액은 12억 달러로 전 세계 수산물 수입 중 1%(제 24위 수입국)를 차지해 수입 규모는 크지 않지만,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200만 톤 정도로 남미 시장 전체 소비량(약 1,200만 톤)의 약 17%를 차지하는 소비 중심지이다. 특히 최근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인 1년당 수산물 소비량이 2016년

8.95kg에서 2026년 11.45kg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남미 시장 개척 및 진출 교두보로서의 중요성이 높다.

- 한편 우리나라의 브라질 수산물 수출도 2010년 1백만 달러에서 2017년 5백만 달러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 현재 브라질은 세계 주요 수산물 수입국은 아니지만, 2억 7백만명(세계 5위)의 인구 대국으로 향후 수산물 소비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이다.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브라질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장이다.

-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, 주당 1회 이상 수산물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'절반 이하'(44.3%)로 보통 수준이며, 품목 중에서는 어류(주 1회 이상 66.2%) 소비가 활성화 되었다. 한 달 기준 총 섭취 식품 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0% 정도로, 수산물 가격과 육류 가격이 동일할 경우 수산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응답자의 인구·사회학적 특성별로는 20~30대의 젊은층, 리우데자네이루 거주자, 월평균 가구소득 \$15,000 이상 고소득층의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- 브라질 가구의 한달 기준 평균 수산물 구입비는 9만원(R\$ 300) 정도로 수산물 구매시 '품질'(51.7%)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, 수입 수산물에 대해 자국산 수산물과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아 수입산에 대해 거부감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.

-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주로 ‘평판 및 지인 권유’(34.7%), ‘인터넷’(28.7%)를 통해 획득하며,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까르푸 등 ‘일반 슈퍼마켓’(50.7%)으로, ‘원어’(30.5%) 형태의 수산물을 가장 많이 구입하였다. 수산물을 주로 섭취하는 장소는 ‘집’(50.7%)으로, 외식 보다는 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경우가 많으며, ‘구이·스테이크’(32.7%)와 ‘튀김·볶음’(22.7%)과 형태의 요리를 선호한다.
- 선호하는 수산물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‘새우’(34.0%), ‘연어’(9.7%) 등이며,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중에서는 ‘참치류’(참치+참치 통조림, 3.2%), ‘굴’(2.8%) 등이 선호되고 있다.
-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정도(50.5%)가 우리나라 수산물 구입 및 섭취 경험이 있으며,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만족도는 71.5점(100점 기준)으로 높게 나타났다.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향후 구매 의향은 20~30대의 젊은층, 월평균 가구소득 1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 의향을 보이고 있어, 브라질 시장으로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계층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.
-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 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‘한국산 수산물 홍보·판촉’(18.5%), ‘적절한 가격대의 수산물 공급’(17.7%) 등이 제시되었다.

□ KMI 해외시장분석센터는 국내 수산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. 「브라질 수산물 소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」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자료 신청은 KMI 해외시장분석센터(☎1644-6419, 이메일 kfic@kmi.re.kr) 혹은 수산물 수출정보포털(www.kfishinfo.net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<끝>

※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임경희 센터장(051-797-4591) 또는 이상건 연구원(051-797-459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